

2024년 7월 29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통신·방송·인터넷은 즉시 보도 가능

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## 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·문의·배포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홍보실 김성권 실장(042-363-7111), 김주영 과장(7115)

### 중기부·소진공,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본격 가동

- 7월 29일(월)부터 소진공 전국 77개 센터 중심으로 정책 통합안내 시작
- 올해 말까지 단계별 안내 플랫폼 구축,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 가동
- 점검 회의, 교육, 워크숍, 현장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정책 이행을 위한 준비 완료

-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, 이하 '중기부')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사장 박성효, 이하 '소진공')은 29일(월)부터 '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'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.
  - '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'(이하 원스톱 플랫폼)은 정부가 지난 7월 3일 발표한 「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대책」의 일환으로, 소상공인이 쉽게 찾아가고, 금융, 취·창업, 경영안정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.
- 중기부와 소진공은 금일 개시한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합 안내 서비스를 시작으로, 3단계에 걸쳐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.
  - ① [1단계, 소상공인지원센터(7월29일~)] 소진공의 전국 77개 센터를 중심으로 부처별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하여 안내하는 서비스로, 금일부터 개시되었다.
    - 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전국 77개 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, 재가지원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,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사업도 연계 안내한다.

② [2단계, 중기통합콜센터<sup>1357</sup>(8월~)]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1357)를 통해서도 소상공인 종합상담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연락망을 구축한다.

- 특히, 수요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콜센터 담당자와 상담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별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상황별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다.

③ [3단계, 소상공인 종합지원시스템('25.1월~)]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1357)에 소상공인 전담팀과 채널을 '1번'으로 신설하고, 전담 상담팀을 구성·운영한다.

- 아울러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를 통해 지원사업 정보제공 범위를 금융위·고용부 등 유관부처 사업으로까지 확대하고, 조건에 따른 맞춤형 사업공고 검색기능 구현, 지원사업 공고 선제적 안내 등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한다.

□ 소진공은 「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대책」의 현장 집행과 「원스톱 플랫폼」 운영을 위해 지난 12일(금) 전국 8개 지역본부 및 77개 센터 보직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점검 회의를 개최했고, 15일(월)에는 중기부와 공동으로 준비상황 점검과 구체적인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.

- 또한 소진공 사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단 및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정책별 지원절차, FAQ 등을 안내하는 교육도 실시하여 종합대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.
- 8월 초에는 6개 유관기관 간 워크숍을 통해 소상공인 대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추진방향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.

- 소진공은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사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자 '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대책 이행 현장점검반'을 26일(금)부터 운영한다.
  - 현장점검반은 공단 본부와 지역본부 인원으로 구성하여 원스톱 플랫폼 및 정책 운영의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, 미흡사항 파악·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.
-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“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위로 홍보하고 안내하고자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”면서,
  - “3단계에 이르는 플랫폼이 원활하게 구축되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
- 한편, 소진공은 이번 정부 대책에 따라 ▲금융지원 3종 세트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, ▲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매출기반 구축, ▲소상공인·전통시장의 스마트·디지털화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Scale-up 지원, ▲수출·동행축제 등 판로확대, ▲새출발기금 지원을 통한 채무조정, ▲취업·재창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게 된다.

<사진자료 : 있음, 붙임자료 : 없음>

## 붙임

## 사진자료

[사진자료]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9일(월)부터 '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'을 본격 가동한다. 사진은 15일(월)에 실시한 중기부-소진공의 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 현장 점검회의의 단체사진이다.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(왼쪽에서 아홉 번째), 오영주 중기부 장관(왼쪽에서 열 번째)과 소진공, 중기부 담당자들(사진출처 : 중소벤처기업부)

